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43호 / 7월 18일

擴大財政政策의 필요성에 대한 중국내 평가

1. 개요

- 중국정부의 확대재정정책 지속과 재정적자에 대한 논란이 금년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중국내 최고 전문가 3인의 견해를 비교해 봄으로써 이와 관련한 중국내 평가를 정리해 봄.
- 財政部 財政科學研究所 마이캉(賈康) 소장은 중국의 재정적자가 아직 위험한 수준이 아니며, 중국정부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재정정책을 잘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함.
-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재정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, 장기적으로 교육관련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함.
- 北京大 經濟研究中心 린이푸(林毅夫) 교수는 상반기의 성장 추세로 미루어 금년도 성장률은 7.5%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.
- 현재의 재정정책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, 다만 도시와 농촌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채투자의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. 특히 농촌 잉여노동력 해소에 정부가 좀더 투자를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함.

- 清華大 國情研究中心 후안강(胡鞍鋼) 교수는 세계경제의 침체가 예상외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, 국내수요 확대를 위한 확대재정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함.
- o 특히 후 교수는 조세수입 증대를 위해 사회보장세 개혁, 정부의 각종 우대조치 개편, 특허권수입에 대한 과세 등을 정부에 건의함.

2. 최근의 경제동향에 대한 평가

- 마이강 소장은 현재 재정적자 수준이 정부의 통제범위 내에 있음을 강조하고, 확대재정정책이 여전히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힘.
-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확대재정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지만, 디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함.
- 린이푸 교수는 상반기의 성장 추세로 미루어 디플레이션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금년도 성장률은 7.5%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.
- 상반기에는 고정자산투자, 공업생산, 대외무역 모두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. 디플레이션은 현재 적절히 통제하고 있으며, 하반기에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- 후안강 교수도 전반적인 경제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디플레이션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함.
- 현재의 경제발전 속도가 연초의 예상보다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경제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, 특히 세계무역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임.

3. 확대재정정책의 필요성

□ 마이강 소장은 정부의 거시조절정책으로 확대재정정책의 의미를 강조하고,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탄력적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하여 왔다고 설명함.

- 현재의 재정적자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향후 경기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것임.

□ 린이푸 교수는 확대재정정책은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지만, 국채투자의 방향에 대해서는 개선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함.

- 대규모 인프라사업에 국채를 중점적으로 투자함과 동시에 도시와 농촌시장의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채 투자를 유도해야 함.

□ 특히 린이푸 교수는 현 경제운영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농촌의 잉여노동력 문제라고 언급하고, 정부가 농민의 절대 수를 감소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.

- 도시부문에서 노동집약형 산업,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이들 부문이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함.

- 농촌 부문에서도 농업개방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인바, 정부가 농업 관련 정보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농업생산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면, 농업도 충분히 국제적인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함.

4.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조세개혁

□ 후안강 교수는 세계경제의 침체가 예상외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수요확대를 위한 확대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, 재정적자 확대에

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함.

- 첫째, 전국적인 기본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가속화 하고, 통일된 사회보장세를 징수함.
- o 사회보장비를 사회보장세로 전환하면 단기적으로 중앙재정수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을 2.5~3.0%포인트 증가시킬 수 있고, 중장기적으로 4~5%포인트까지 늘릴 수 있음.
- 둘째, WTO 원칙에 따라 각종 기업에 대한 세수 우대정책 및 재정보조정책을 재조정하는 대신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유도함.
- 셋째, WTO 원칙에 따라 관세감면 및 수출보조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함. 국가재정은 수출과 무관한 직접보조나 과도한 보조를 줄임으로써 중앙재정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음.
- 넷째, 각종 특허기관의 특허권수입에 대한 과세를 고려할 수 있음.
- o 예를 들면 중앙은행에서 화폐발행수입의 특허권수입, 은행, 증권, 신탁과 관련된 특허권수입, 전국 TV의 방송특허권수입, 무선통신회사의 국가 무선채널 사용에 대한 특허권수입, 연초 및 주류의 판매 특허권수입, 석유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권수입 등임.

5. 기타 이슈

□ 린이푸 교수는 금년 상반기 금융분야에서는 외자은행의 중국진출이 시작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평가함.

- 4대 국유은행은 경쟁에 적응하기 위해 경영의식 및 경쟁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비용분석을 중요시해야 함.
- o 금융조정부문은 중소기업의 발전에 유리한 금융환경 건설에 사업중점을 두어 중소기업에게 더욱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함.
- o 첨단기술분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바, 이는 차스닥 개장을 포함하

여 현재의 금융환경을 보다 완화시키는 정부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.

□ 마이캉 소장은 정부가 기초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함.

- 교육투자의 확대는 기초교육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고 국민자질을 향상시키고, 개혁 과정에서 사회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도 유리함.(***)